

# 東獨의 소멸과 동독텍스트의 생존

## 통독 이전의 동독책은 이제 무슨 의미를 갖는가

베를린장벽의 붕괴로 상징화된 독일의 통일 은 20세기 최대의 사건이라는 일반적 평가를 넘어 논자에 따라서는 그 의미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 “차라리 21세기적인 사건”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국가적 차원의 ‘귀순’에 의해 초래된 동독의 붕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대극적인 사회체제의 경쟁에서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한 ‘시금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세계사적 기류 속에 서점가에는 동독에서 간행되었던 사회과학 중심의 교과서들-자본주의체제의 궁극적 붕괴를 예언하고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한 책-과 동독 반체제 문인들의 작품집이 간행되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정치경제학 교과서가 주류 이류

이즈음 번역되어 국내 독자들에게 선보인 동독교과서들은 원전 자체가 대부분 동독의 대학이나 전문학교의 해당과목에서 필수적인 교재로 사용되었던, 말 그대로의 의미에서 교과서였던 책들이다. 이들 교과서들의 공통된 특성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연구성과물이 아니라 동독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대거 참가한 집단저작물이라는 점 ▲70년대 이후 과학기술 혁명에 힘입어 이루어진 자본주의의 내포적·집약적 발전을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점 ▲양체제간의 대결로 인해 증대된 핵전쟁의 위협 등 전인류적 차원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정치경제학 분야의 교과서로 국내에 소개된 대표적인 책은 「자본주의 정치경제학」(디터 클라인 외 지음, 권영경 옮김, 세계). 동베를린 훔볼트대학의 총장인 디터 클라인이 책임감수한 이 교과서는 70년대 이래 이루어진 생산력 발전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성장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제국주의 단계에서 심화되고 착종되는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한 논리적 규명이 돋보이는 책이다. 특히 이 책은 거간의 다른 교과서들이 다루지 않았던 발전도상국의 경제 문제를 비롯해 탈 식민지화과정, 제국주의와 발전도상국 사이의 모순 등의 문제를 현대자본주의의 총체적 발전과정과 일반적 위기론의 연관 속에 해명하고 있어 제3세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길을 열어 놓았다.

동베를린의 디이츠출판사가 88년에 발행하고 동독의 대학과 전문교육부가 ‘인정’한 「현대정치경제학」(리히터 외 지음, 유팔무 옮김, 녹두)은 소련공산당 제27차 당대회를 통해 본격화된 ‘페레스트로이카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책. 이로 인해 이 책은 양체제 평화공존의 당위성, 이를 위한 군비축소문제, 그리고 급속한 과학기술발전이 따른 변화를 표나게 내세우고 있어 종래의 정치경제학 교과서의 내용에 현대적인 감각을 불어넣고 있다. 각 장의 끝에 학습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연습문제’가 있어 흥미롭다.

「정치경제학사」(마이너스 엠틀, 박영호 옮김, 세계)는 동독의 경제학사 및 정치경제학 연구자들의 집단저작물. 정치경제학사라는 학문은 계급이익의 반영으로서의 경제적 인식들에 대한 고찰이라고 주장하는 이 책의 저자

### 統獨이전의 동독에서

출판됐던 책들이 여전히 국내독서계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이같은 현상에 대해 세계사적 흐름의

선도부분은 농친 채 겨우 뒷북이나 치는

우리 지성계의 후진성 탓으로 돌리는

냉소적 해석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선 동독텍스트 출간의 의미를

나름대로 인정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들은, 현대자본주의의 경제이데올로기에 대한 총체적 비판과 함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치경제학의 성립사를 기술하고 있다.

「역사적 유물론」 「변증법적 유물론」(아이히호른 외 지음, 이상훈 외 옮김, 동녘)은 79년 동독에서 교사용으로 간행되었던 대표적인 철학책. 철저한 당파성의 관점에 입각해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의 근본문제를 해석하면서 이것을 오늘날의 사회적 실천과정에서 제기된 철학적 문제들과 긴밀하게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스 스토이스로프가 대표집필한 「역사적 유물론」 「변증법적 유물론」(이신철 외 옮김, 세계)은 “대학에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초학습을 위한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 과정의 교과서”로 집필된 것으로 앞의 책과 동일한 입장에서 씌어졌다.

「새로운 세계를 위한 철학」(동독 사회과학

아카데미 지음, 박정수 옮김, 새물결)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발전된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쓴 또하나의 집단저작물. 비교적 최근인 88년에 씌어진 이 책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발전사를 그 당시의 사회·경제적인 조건들과 그것을 변혁시키는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긴밀하게 결합하여, 총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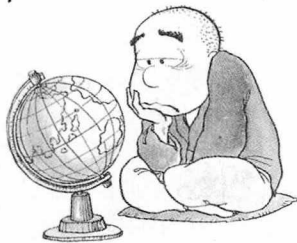
### 통독과정의 갈등양상 드러낸 것도

「페레스트로이카 논쟁-동독편」(신현준 편역, 새길)은 교과서는 아니지만 페레스트로이카가 전개된 이래 동독의 학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거부했다면 어떤 까닭에서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 책이다.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는데, 앞부분은 89년이전의 독일통일사회당의 정책방향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실려 있고, 뒷부분은 ‘1989년 사태’와중에 이를 수습하기 위한 당내의 논쟁들이 실려 있다. 따라서 앞부분의 글들이 위기의 예방책에 관한 것이라면 뒷부분은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를 찾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어 동독 진행과정에서 제기된 이념적 갈등양상을 접할 수 있다.

이밖에도 맑스·엥겔스의 문예저작집들 가운데 가장 완벽한 내용과 체제를 갖춘 완결본이라 평가받는 「맑스·엥겔스 문학예술론」(만프레트 클림 엠틀, 조만영 외 옮김, 돌베개)과 차츰 소홀하게 다루기 쉬운 엥겔스의 생애를 마르크스의 그것과 한데 묶어 조명한

조용한 산사(山寺)  
에서 수행하며  
구도하던 한 스님이  
어느 날 문득 떠올린  
세계여행!



스님은 동키호테?  
이 즉흥적 발상의  
세계여행은 그야말로  
빈손에 걸망 하나만을  
챙겨 든, 모험극을  
방불할 만한 여행일  
수밖에 없었다.



밀짚모자와 고무신,  
그리고 걸망 하나로  
여행준비는 OK.  
우리 모두 동키호테  
스님과 함께 세계를  
향해 떠나 보자.



실수연발 원담스님 세계여행기

## 걸망 속에 세계를 담고

황당한 여행 계획과 짧은 어학 실력, 그리고 몇 푼 되지 않는 돈으로 도전한 스님의 세계 여행은 재치와 배짱으로 이어지는 웃지 못할 해프닝의 연속이었다.

□ 원담 지음/값 3,500 원

720-5990-1

진신출판사

전기물인 「두사람」(켄보크 지음, 김대웅 외 옮김, 죽산)도 비록 교과서는 아니지만 동독의 학문적 성취도를 가늠케 하는 주요 저작물의 하나로 국내에 번역, 소개되었다.

앞의 책들이 주로 체제의 공인된 이데올로기를 제도적으로 재생산하는 교과서로서 동독 사회의 버팀목이었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설교'하고 있다면, 예지각이 기획한 '동독문학선'은 그 체제가 '좌초'될 수밖에 없었던 내적 동인을 보여주고 있어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단 7권으로 기획된 '동독문학선'은 이미 「진실을 둘러싼 어려움들」(발터 안카 지음) 「제1인자」(란돌프셰르처 지음) 「젊은 베르테르의 새로운 슬픔」(울리히 플렌츠도르프 지음) 「탱고 연주자」(크리스토프 하인 지음) 등이 출간되었고, 「크리스타 T에 대한 추념」 「11월」 「동독단편문학선」 등이 곧 간행될 예정이다.

이 기획에 선정된 작품들이 갖는 특이함은 모든 작품이 스탈린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주조를 이루고 있어 동독에서는 출판이 금지되어 서독에서 간행되는 비운을 겪었던 작품이라는 점. 문학적 형상화라는 매개물을 통해 고발된 동독 사회주의의 체제적 모순을 통해 우배제자의 단편소설 제목처럼 '예기치 않았던 일'인 동독의 붕괴가 일어난 까닭을 읽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동독 교과서의 활발한 출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분히 냉소적인 반응이다. 한 정치학자의 표현대로 동독 교과서의 매트는 출간분은 우리 지성계의 '후진성'을 새삼 확인

하는 계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간 학계를 비롯한 우리 지성계의 이론동향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의 선도부분은 놓친 채 "겨우 뒷북이나 치는" 고질적인 병폐를 안고 있었는데, 최근의 출판경향은 그러한 좋지 못한 전철을 되밟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적신히라는 평가다.

이러한 냉소적 반응은 일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광범하게 일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동독 교과서출판을 기획했던 출판사들이 번역작업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활발하게 동독 교과서를 출판했던 도서출판 세계의 한 편집자는 "기획의 대부분이 독일의 급격한 변화를 예측할 수 없었던 시기에 세워져 독일통일 이후 동독 교과서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을 전망하지 못했었다"고 말하면서, "최근 그러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더 이상의 동독 교과서 번역 출판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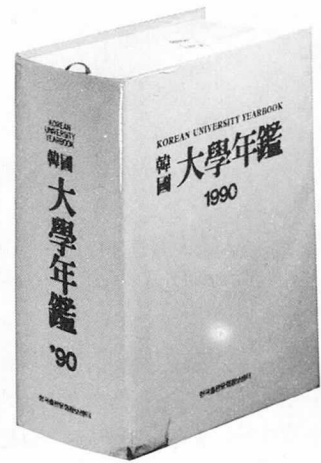
그 자신 동독의 정치경제학 교과서를 번역했던 권영경씨(연세대 강사)는 이같은 평가를 일면 수긍하면서도 동독 교과서 출간의 의미를 자기비하적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그러한 작업자체가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와해요인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다"고 말하면서 "더 나아가 각급의 사회주의권의 이념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 자력으로 해결되지 않는한 마르크시즘은 변혁운동에 여전히 유효한 이념적 무기임을 잊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권우>

화제의 책

# 국내외 정보 총망라한 '대학백과'

90년도판 「한국대학연감」



지난 82년이래 한국 대학사회의 현황을 집대성, 상세한 자료를 국내외에 제공한다는 취지로 발간돼온 「韓國大學年鑑」이 최근 90년도판 제4호로 속간되었다.

16개월간의 자료수집기간을 거쳐 완성된 이번 속간호는 기간호의 내용을 수정·보완, 특히 대학간 협력은 물론 산학연계의 상호협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료를 대폭 첨가·수록한 것이 특징.

전5편으로 구성, 제1편 '세계의 대학'에서는 국내 최초의 유학연감 형식으로 외국대학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아시아 9개국 667개국·아메리카 9개국 1509개국·유럽 20개국 516개국·오세아니아 2개국 26개국·중동 9개국 77개국·아프리카 4개국 47개국 등 동구권을 포함한 전세계 총 53개국 2842개 대학의 연혁·설치학부·학기·도서관·학생수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재외 한국인교수·학자 2108명의 인명록을 첨가, 그들의 해외활동현황을 알 수 있게 했다.

제2편 '대학概況'에서는 국내대학 '백년사'가 주요기사별로 조망되어 있는 한편, 총 학교수·학생수·교원수·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시설·장학제도·취업현황·대학문교정책과 관계법령·대학관계문헌목록 등 전문대·특수대를 포함한 전국 275개 대학의 총체적 개황이 요목별로 분류·정리돼 있다.

제3편 '대학현황'에서는 종합대 61개국·단과대 43개국·특수대 9개국·교육대 11

개교·산업대 6개교·전문대 117개교·각종 학교 25개교의 연혁·특색·재학생수·졸업생수·설치학과 및 교수진·서클활동·부속기관과 연구소·대학원 현황 등이 소개돼 있다.

제4편 '연구문화단체현황'에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21개·국공립시험 연구기관 42개·민간연구기관 47개·기업부설연구소 597개·산업기술연구조합 26개·문교부 산하단체 14개·학술 및 문화 교육단체 19개·각종 학회 547개의 연혁·설립목적·주요업무·이사회·연구원·조직·구성원수·예산·간행물 등을 총망라했다.

제5편은 '교수인명록'으로 전임강사 이상 30080명의 국내교수명단을 가나다 순으로 분류, '교수들이 직접 쓴' 연락처·학력·학위논문·경력·담당과목·저서를 소개하고 있으며 학과별 대학분류에 따른 교수명단을 따로 마련, 전공별 교수현황을 조감할 수 있다.

한국출판문화정보센터 / B5 / 2099면 / 80,000원

국내최초공개!  
"우주 여인이 지구에 왔습니다."



농부<마이아>가 촬영한 플레이아데스 성단에서 온 우주여인

## 독자 여러분 신비한 UFO 비행음을 지금 즉시 들어 보세요.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전자식 전화기로 152번을 누르면 사서함 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다시 8159번을 누르시면 우주여인<셈야제>의 UFO 비행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은 (02) 152번을 누르세요.>  
● MBC TV에 방영된 화제의 농부<마이아>와 우주여인<셈야제> 일본 N.TV에서 농부<마이아>가 살고 있는 스위스 취리히 주에 가서 움직이는 UFO를 촬영 취재하며 세계 최초로 방영함으로써 전세계를 놀라게 한 우주여인<셈야제>이야기! 삭막한 현대인에게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여인이 얘기하는 놀랍고도 신선한 사연들.

## 화제의 장기 베스트셀러 그대, 반짝이는 별을 보거든...

—우주여인<셈야제>와 농부<마이아>이야기—  
● 농부<마이아>사건의 충격 ● 예수 생전에 기록된 최초의 성경 ● 현재 성경은 위서(僞書)인가 ● 인류조상은 누구인가 ● 밝혀지는 태양계의 비밀 ● 바울 6세 교황은 암살되었는가 ● 우주인의 사랑과 생활 ● 예수의 부활은 거짓인가 ● 예수 탄생의 비밀 ● IBM보오겔 박사의 증언 ●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NASA·IBM 과학자들의 사실 증언수록—  
그곳으로부터 무한한 행복·무한한 사랑·무한한 아름다움·무한한 가치·무한한 지혜가 생겨납니다. <셈야제>  
● 오다가 오시아 역음 ● 정우인 옮김 ● 사진제공 농부 마이아 ● 한국어판 국내 독점계약 출판\* 신국판/242면/값3,500원

도서주문 전명서적 : (02) 272-5871  
울지서적 : (02) 757-8991  
시어사 대표전화 : (02) 549-6817  
F A X : (02) 549-6816